

농업계 고등학생들의 자아개념이 그들의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백철수* · 구병두**

(*통진종합고등학교 교사 · **한성대학교 교직과 강사)

The Effect of the Self-concept on the Career Maturity of Agricultural Senior High School Students

Cheol-Su Baeg* · Byung-Doo Ku**

*Tong-Jin senior high school · **Dept. of Education, Han Sung University

적 요

본 연구의 목적은 농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지각한 자아개념과 진로성숙과는 상호 어떠한 관계가 존재하는가를 밝히고, 또한 학생들이 지각한 자아개념과 진로성숙은 그들의 배경변인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를 규명하는 데 있다. 따라서 본 연구와 관련된 문헌과 논문들을 분석하여 이론적 기초를 마련한 다음 농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자아개념과 진로성숙의 정도는 그들의 배경변인에 따라 어떻게 다른가 하는 문제를 설정하였다.

이와 같은 가설을 검정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자아개념” 질문지와 “진로성숙도” 검사도구를 사용하였으며, 연구대상은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농업계 고등학생 42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를 위하여 사용한 통계방법은 Pearson의 적률상관(r)과 변량분석(ANOVA) 및 t-test 방법이다.

그 결과, 성격적 자아와 성향, 학문적 자아와 성향 변인의 상관계수는 각각 0.31과 0.33으로 다른 변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상관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자아개념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하위 변인과 관여성과는 거리가 매우 낮은 정적 상관 및 부적 상관을 나타내 펍 대조를 보였다. 따라서 진로결정에 필요한 사전 이해와 준비성의 정도는 학생들의 성격적 자아와 학문적 자아와는 많은 관련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1. 서론

1. 연구의 목적

현대사회는 전통적인 신분사회와는 달리 개인의 노력과 능력에 의해서 사회경제적 지위가 결정되는 이른바 능력주의 사회(meritocratic society)가 된지 오래이다. 또한 산업사회의 발달로 인하여 이제 직업의

세계는 다양화되고 전문화되어짐에 따라 여러 분야에서 생계유지와 사회적 역할분담 그리고 인간육구의 마지막 단계인 자아실현의 완성을 의미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직업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모든이들에게 높이 인식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진로교육의 중요성이 높이 평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교육에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전통적 주류문화인 유교적 가치관의 영향도 컸겠지만 무엇보다도 가정이나 학교에서의 진로

교육에 대한 인식의 부족,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는 건전한 직업의식의 결여, 직업세계에 대한 인식의 부족과 진로결정에 대한 사전 이해와 준비성 결여로 인한 의사결정 능력 부족 등 여러 측면에서 기인된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진로교육을 위한 일선학교의 적절한 교육과정(curriculum)의 미설치와 프로그램의 부족, 진로교육 전담교사의 무배치는 물론 이거니와 진로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기초연구조차 이루어지지 않는 데에서 찾을 수 있다. 또한 기존의 진로교육 프로그램은 일의 세계, 즉 어떠한 직업을 어떻게 선택해야 좋은가에 역점을 두었다. 그러나 교육이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인간행동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처럼 진로교육의 궁극적 목적은 단순한 진학에 대한 상담이나 취업지도가 아니라 평생에 걸쳐 한 인간이 나아갈 길과 삶의 방향을 정확하고 현명하게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 자신의 진로를 인식하는 인간을 길러내는 것이라고 할 때 진로교육은 기존의 교육프로그램에 일의 세계를 포함한 모든 인생 진로문제와 관련하여 재구조하고 재편성하여 지도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필요가 있다(장석민 외, 1988).

따라서 본 연구는 인생의 진로선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기에 해당되는 고등학생 가운데에서도 여건이 그들 또래집단에 비하여 특이하면서도 농업에 종사하는 부모일수록 자식들에게만은 자신들의 직업을 대물림하기를 극구 반대하는 부모와 농업은 전략산업의 일환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학교교육 사이에서 크게 갈등하는 오늘날의 농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자아개념이 그들의 진로성숙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밝히는데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이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농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지각한 자아개념과 그들의 진로성숙과는 상호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으며, 학생들이 지각한 자아개념과 진로성숙은 그들의 배경변인에 따라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를 구명하는데 있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서 구명할 보다 구체적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아개념을 구성하고 있는 하위 변인들과 진로성숙 하위 변인간에 상호 어떠한 상관관계가 존재하는가를 밝히는 데 있다.

둘째, 자아개념을 구성하고 있는 하위 변인들은 농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성별, 학년, 아버지의 학력, 가정생활 정도에 따라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를 구명하고자 하는 데 있다.

셋째, 진로성숙을 구성하고 있는 하위 변인들은 농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성별, 학년, 아버지의 학력, 가정생활 정도에 따라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를 밝히는 데 있다.

II. 이론적 배경

1. 자아개념

자아에 관한 심리학자들의 관심은 대체로 18세기 말부터 보고 있는데, 이 자아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하여 그 이론적 토대를 이룬 학자는 James이다. 그는 자아를 인지되는 자아, 즉 경험적 자아와 인지하는 자아, 즉 순수한 자아 등 둘로 나누고 있다. 여기서 가장 넓게 사용하고 있는 자아는 경험적 자아인데 이것은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 즉 신체, 특성, 능력, 소유물, 일, 명예 등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물질적 자아, 사회적 자아, 정신적 자아의 3가지로 구성·정리되어진다. 한편 순수한 자아는 인지하는 자, 즉 사고자로 여긴다. 앞의 경험적 자아가 특정한 순간에 의식되는 자아로서 의식의 대상 객체라고 한다면, 사고자로서의 순수한 자아는 의식의 주체이다. 오늘날의 과학적인 자아심리학에서는 인간행동의 원인규명을 행동으로부터 추출된 가설적 구조의 자아개념을 통해서 고찰한다. 이를테면 자아개념이 한 개인의 반응에 있어서 선행자이면서 인간행동의 중심인 것으로 본다.

Rogers(1951)는 그의 자아이론을 통하여 자아를 객관적인 자아(자아, 자아개념, 자아구조)와 주관적 자아(개인, 조직, 기관)로 나누었는데, 여기서 주관적

자아는 객관적 자아를 실용화한 것으로 자아와 자아개념을 종합한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실존하는 자아는 객체로서의 자아와 행위자로서의 자아의 통합체라고 보았다. Munley(1977)는 자아개념의 다면적 영역 중 자아 존중감, 명확성, 안정성, 확신성, 실재성, 구조, 범위 그리고 조화를 자아 정체감의 이론적, 조작적 정의로 규정하고 있다.

Bloom(1976)은 학교에서의 성공적 또는 실패의 경험이 일차적으로는 학생들의 학문적 자아개념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이차적으로는 비학문적 자아개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였다. Felker(1974)의 자아개념과 학업성과와의 상관관계 연구에서 일차적으로 사람들은 자신들이 설정한 목표를 얼마나 성공적으로 성취했느냐에 따라 자신을 평가하게 된다고 결론짓고 있다.

이같은 성취경험과 자아개념 형성과의 관계에 대해 체계적인 설명은 자아강화 및 자기규제 이론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자아강화란 개인이 자기가 설정한 표준에 도달할 때마다 자신을 보상함으로써 자신의 행동을 유지 향상시키는 과정을 의미한다.

이는 곧 자기가 자신의 행동을 강화하는 내적 강화와 같은 개념으로 이해된다. 그런데 어떤 성과에 대한 자기반응에는 적극적 반응(자기칭찬)뿐만 아니라 소극적 반응(자기비난)도 있을 수 있다. 그런 점에서 Bandura는 자기반응이 행동을 증강시키는 효과와 약화시키는 효과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자기규제라는 개념을 더 많이 사용하였다.

송인섭(1990)은 자아개념이 형성되는 과정은 다양한 상황에서 부딪치는 경험의 축적이며, 이같은 축적된 경험의 누적을 통해 자아가 형성된다는 측면을 강조한 것이 기존 자아개념 이론의 핵심이었는데, 그는 이에 대해 자아개념에 대한 인식의 영역과 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하고 다양성이 결여되었다고 지적하면서 그 자아개념 접근의 한계점을 다음과 같이 들고 있다.

첫째, 환경적 경험의 내용 차원을 처리하는데 요구되는 정신작용의 차원이 없다는 데 문제가 있다.

둘째, 정신작용이 경험의 내용에 작용해서 나타나는 결과 차원의 설명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셋째, 정보의 경험과 정신작용의 상호작용에 의해 나타나는 결과 차원은 자아개념을 하나의 행위자로 가정할 때 중요한 차원으로 보았다.

또한 Stewart와 Nejedlo(1980)는 자아개념의 기본 요인에 자아 이미지, 자아 확신성 그리고 자아 존중감 등을 포함시켜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 여기서 자아 이미지만 유전적 요인들인 신체, 종족, 성, 정신적 신진대사적 기능 그리고 유전적 성격 특성에 대한 인식과 개인적 차원이나 문화적 규범 안에서의 사회적 상호작용, 도덕성에 대한 인식 등을 뜻한다. 그리고 자아 확신성이란 개인의 유전적 능력과 학습 기술간의 통합결과인 성취, 실행에 대한 인식을 뜻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여러 학자들의 견해를 종합해 보면 자아개념의 형성과 관련된 주요 과정 변인은 어떤 과제의 성취 경험과 더 나아가 자아개념을 개인이 자신에게 관계되는 모든 요소에 대해 인지 평가하는 개념의 집합체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진로 성숙

진로성숙에 대한 개념의 정립은 1940년대 Carter, Strong, Super 등에 의해 청소년들의 진로행동에 관한 연구에서 비롯되었다. 그후 1950년대 직업선택 발달 이론가들을 통해 발전되었다. 하지만 지금까지 진로성숙에 관한 일관된 개념 정의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이 분야의 여러 학자들의 진로성숙에 관한 개념들을 고찰하여 하나의 통합된 개념을 도출해내고자 한다.

Gibbons와 Lohnes(1964)는 진로성숙을 진로선택이나 계획에서의 준비도의 개념으로 보았으며, 진로성숙 수준은 개인의 내적, 외적 여건에 따라 개인차가 있다고 보았다. 또한 이들은 교육과정, 직업 정보, 흥미, 가치 등이 진로성숙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다. Super(1969)는 진로성숙을 성장기로부터 쇠퇴기에 이르는 직업발달의 연속성상의 한 도달점으로 정의하였다. 그리고 Crites(1974)는 진로성숙을 동일한 발달단계의 학생들과의 비교에서 나타나는 상대적인 직업 준비의 정도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Hoyt(1977)

는 진로성숙을 개인이 자아와 직업세계를 잘 이해한 바탕에서 이 둘을 현명하게 통합할 수 있는가에 대한 준비도라고 하였다.

한편 김충기(1983)는 진로성숙을 개인의 직업적 소양, 가치, 기술 등의 습득을 통해 궁극적으로 직업 적성에 부합되는 행동과 판단력을 낳는 과정을 직업발달이라고 보고 이러한 과정을 거쳐 이루어진 결과를 진로성숙이라 하였다. 한국교육개발원(1990)에서는 진로성숙이란 자아인식의 기초 위에서 진로계획과 진로선택을 할 때 동일한 발달단계에 있는 집단의 진로와 관련된 발달과업 수행과 일치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상의 진로성숙에 관한 개념을 종합·정리해 보면 진로성숙이란 진로의식, 탐색, 의사결정에서의 발전적 변화의 개념으로 개인이 진로를 탐색하고 선택할 때 자아와 환경을 인식하여 진로를 선택하고 적응해 가는 준비의 과정이라 할 수 있다.

3. 자아개념과 진로성숙과의 관계

어떤 사람이 만족하고 행복하기 위해서는 일에서 만족하고 행복을 찾아야 한다. 즉, 일과 직업이 자아개념과 일치할 때 행복하고 만족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불안과 갈등이 싹트게 된다. 자아개념이란 넓은 의미에서 자기 자신에 대한 지각을 의미하는 것으로 진로성숙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자신이 선택한 직업에 대한 관심도나 진로를 결정해야 될 상황에서 독립성을 유지하려는 노력의 정도에 있어서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가진 사람과 부정적인 자아개념을 가진 사람사이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Super(1953)는 자아개념과 생애발달의 관계에서 사람은 자신의 자아개념과 일치하는 직업을 선택한다고 하였다. Emglander(1960)와 Oppenheimer(1960)는 직업적 역할 개념에 대한 연구를 통해 자아개념과 직업개념 그리고 진로성숙간에 유의한 상관이 있다고 밝혔다. 자아개념과 좋아하는 직업, 직업가치간에는 유의한 상관이 있으며 개인이 자신의 자아개념과 일치하는 직업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었다. Green-

haus(1971)의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직업선택에서 내적 요인을 중요시하는 반면에 자아존중감이 낮은 사람은 외적 요인을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Mathewson과 Orton 등(1963)은 진로성숙 척도를 개발할 때는 자아개념의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Nelson(1987)에 의하면, 개인은 누구보다도 자신에 대한 느낌, 태도, 행동에 대해 잘 알고 있으므로 상담시에 피상담자의 자아개념을 이해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그러나 Frez와 Leong(1982)의 연구에서는 진로성숙과 자아개념 수준간에 별로 상관이 없다고 나타났다. Korman(1969)의 연구에서는 Super의 자아실행이론은 자아개념이 높은 학생에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고 있다. 또한 Kidd(1984)의 연구에서도 Super의 자아실행 이론은 보다 능력있고 자아존중감이 높은 학생에게 잘 적용되지만 그렇지 않은 학생에게는 맞지 않으므로 수정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지금까지의 자아개념과 진로성숙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에서 대부분 상관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학생들의 자아개념을 높여줌으로써 현명하고 합리적인 진로선택 및 의사결정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이 되리라고 본다.

III. 연구의 문제 및 가설

1. 연구의 문제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은 농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지각한 자아개념과 그들의 진로성숙과는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으며, 학생들이 지각한 자아개념과 진로성숙은 그들의 배경변인에 따라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를 밝히는데 있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서 밝혀질 보다 구체적인 연구의 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자아개념을 구성하고 있는 하위 변인과 진로성숙 하위 변인간에는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자아개념을 구성하고 있는 하위 변인

들은 학생들의 성별, 학년, 아버지의 학력, 가정생활 정도에 따라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3. 진로성숙을 구성하고 있는 하위 변인들은 학생들의 성별, 학년, 아버지의 학력, 가정생활 정도에 따라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2. 가 설

앞서 살펴본 이론적 배경을 토대로 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I〉 자아개념을 구성하고 있는 하위 변인과 진로성숙 하위 변인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다.

〈가설 II〉 자아개념을 구성하고 있는 하위 변인(① 신체적 자아 ② 도덕적 자아 ③ 성격적 자아 ④ 가정적 자아 ⑤ 사회적 자아 ⑥ 학문적 자아)은 학생들의 배경변인(㉑ 성별 ㉒ 학년 ㉓ 아버지의 학력 ㉔ 가정생활 정도)에 따라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III〉 진로성숙을 구성하고 있는 하위 변인(① 결정성 ② 관여성 ③ 독립성 ④ 성향 ⑤ 타협성)은 학생들의 배경변인(㉑ 성별 ㉒ 학년 ㉓ 아버지의 학력 ㉔ 가정생활 정도)에 따라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IV. 연구방법

이상에서 언급한 연구의 목적과 연구내용을 수행하기 위해서 적용될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연구의 대상

본 연구는 경기도 지역에 소재해 있는 3개의 농업계 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남녀 학생 1,234명 420명을 대상에게 설문지를 배부하여 398매를 회수하였으며, 이 가운데 설문지 반응에 부실한 5매를 제외한 393매를 본 연구의 대상으로 하였다(회수율: 94.76%).

2. 검사의 도구

본 연구를 위해서 사용한 검사도구는 2가지 종류인데, 하나는 농업계 고등학생들의 자아개념을 측정하기 위한 질문지이며, 다른 하나는 농업계 고등학생의 진로성숙도를 측정하기 위한 질문지이다. 그러면 이들 두 측정 도구들이 지니고 있는 특성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자아개념 검사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아개념 검사는 김기정(1984)이 기존의 자아개념 검사도구들(정원식, 1968; 김호

표 1. 자아개념의 하위 변인별 문항구성

자아개념 하위변인	문항수	문항 번호
신체적 자아	10	(1), 2, 3, 4, (5), (6), 7, 8, 9, (10)
도덕적 자아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성격적 자아	1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가정적 자아	1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사회적 자아	1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학문적 자아	2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 ()는 역전 문항임

권, 1979)을 종합하여, 수정·축소하여 제작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자아개념 검사는 6개의 하위변인, 즉 신체적 자아, 도덕적 자아, 성격적 자아, 가정적 자아, 사회적 자아, 학문적 자아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 각 변인들이 구성하고 있는 문항들은 다음 표 1과 같다.

2. 진로성숙도 검사

본 연구의 대상인 농업계고등학교 학생들의 진로성숙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사용한 검사도구는 Crites(1978)가 제작한 진로성숙도 검사를 김현옥(1989)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진로성숙도 검사는 5개의 하위변인, 즉 결정성, 관여성, 독립성, 성향, 타협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 각 변인들이 구성하고 있는 내용들과 문항들은 다음 표 2와 같다.

3. 연구의 절차

본 연구를 실행함에 있어서 먼저 문헌 연구를 시작하였으며, 이에 관련된 참고서적, 관계논문 등을 수집하여 이들을 기초로 연구의 방향 설정과 연구문제를

를 제기하였다. 제기된 연구문제에 맞는 검사도구를 결정된 후 조사대상을 정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통계처리를 하였다. 이와 같이 통계처리한 자료를 가지고 연구를 뒷받침해 줄 분석과 해석을 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연구의 결론을 내린 후에 논문을 작성하였다.

4. 자료의 처리

본 연구를 통하여 수집될 자료는 Personal Computer용 SAS(statistical analyses system)Program에 의한 Pearson의 적률상관관계(r)와 변량분석(ANOVA) 그리고 t-test 등의 통계방법을 통해 처리되었다.

5. 채점의 방법

자아개념의 경우에 있어서 긍정적인 질문에 전혀 그렇지 않다면 1점, 대체로 그렇지 않다면 2점, 대체로 그렇다면 3점, 아주 그렇다면 4점으로 환산한 반면 부정적인 질문의 경우에는 전혀 그렇지 않다면 4점, 대체로 그렇지 않다면 3점, 대체로 그렇다면 2점, 아주 그렇다면 1점으로 환산하였다.

또한 진로성숙도의 경우에 있어서 긍정적인 질문에 전혀 그렇지 않다면 1점, 대체로 그렇지 않다면 2

표 2. 진로성숙도의 하위 변인별 문항구성

진로성숙도 하위변인	내용 기술	문항 번호
결정성	선호하는 진로의 방향에 대한 확신의 정도	(1), (2), (11), (21), 22, 30, (31), (39), (40), (46)
관여성	진로선택 과정에서의 능동적 참여의 정도	3, 4, (13), (14), 23, 24, 32, 33, 41, 42
독립성	진로선택을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정도	(5), 6, (15), 16, (25), 26, 34, (35), (43), (44)
성향	진로결정에 필요한 사전 이해와 준비의 정도	(7), (8), 12, (17), (18), (27), (28), (36), (37), (45), (47)
타협성	진로선택시에 욕구와 현실을 타협하는 정도	9, 10, 19, 20, (29), 38,

* ()는 역전 문항임

점, 대체로 그렇다에 3점, 아주 그렇다에 4점으로 환산한 반면 부정적인 질문의 경우에 있어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에 4점, 대체로 그렇지 않다에 3점, 대체로 그렇다에 2점, 아주 그렇다에 1점으로 환산하여 채점하였다.

V. 결과 분석 및 해석

본 연구는 세 영역으로 구분되는데 첫째, 자아개념과 진로성숙과의 상관관계, 둘째, 학생들의 배경변인

에 따른 자아개념의 차이, 셋째, 학생들의 배경변인에 따른 진로성숙 차이 등을 검증하고자 한다.

가. 자아개념과 진로성숙과의 상관관계

자아개념을 구성하고 있는 하위 변인과 진로성숙 하위 변인간에는 상호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가를 알아본 결과는 다음 표 3과 같다.

이상의 표 3에서 나타내 보듯이 대체로 자아개념 하위 변인과 진로성숙 하위 변인인 결정성, 성향

표 3. 자아개념 하위 변인과 진로성숙 하위 변인간의 상관관계

자아개념 - 진로성숙	결정성	관여성	독립성	성향	타협성
신체적 자아	0.14**	0.10*	0.05	0.14**	0.07
도덕적 자아	0.18***	-0.04	0.13*	0.23***	0.25***
성격적 자아	0.29***	-0.03	0.13**	0.31***	0.12*
가정적 자아	0.12*	-0.07	-0.01	0.15**	0.16**
사회적 자아	0.15**	0.01	0.14***	0.17***	0.23***
학문적 자아	0.24***	-0.09	0.10*	0.33***	0.19***

*: p<0,05 ** : p<0,01 ***: p<0,001

표 4. 학생들의 성별에 따른 자아개념의 차이검증

자아개념	성별	빈도	평균	표준편차	t 값	자유도	p 값
신체적 자아	남	251	27,92	3,79	4,41	391	0,0001
	여	142	26,17	3,79			
도덕적 자아	남	251	27,14	4,40	1,26	391	0,2100
	여	142	26,55	4,55			
성격적 자아	남	251	27,29	4,20	3,04	391	0,0026
	여	142	25,95	4,25			
가정적 자아	남	251	29,38	3,60	1,80	391	0,0725
	여	142	28,68	3,81			
사회적 자아	남	251	27,82	4,53	0,23	391	0,8084
	여	142	27,71	4,15			
학문적 자아	남	251	51,64	9,22	0,74	391	0,4434
	여	142	50,95	8,10			

그리고 타협성 변인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반면 나머지 관여성과 독립성은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밝혀져 본 연구의 <가설 I>은 부분적으로만 긍정된 셈이다.

특히 성격적 자아와 성향, 학문적 자아와 성향 변인의 상관계수는 각각 0.31과 0.33으로 다른 변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상관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자아개념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하위 변인과 관여성과는 거의가 매우 낮은 정적 상관 및 부적 상관을 나타내 보여 띄 대조를 보였다.

따라서 진로결정에 필요한 사전 이해와 준비성의 정도는 학생들의 성격적 자아와 학문적 자아와는 많은 관련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학생들의 배경변인에 따른 자아개념의 차이검증

1) 학생들이 지각한 자아개념은 그들의 성별에 따라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본 결과는 다음 표 4와 같다.

위의 표 4에서 알 수 있듯이 신체적 자아와 성격적 자아에서 실제로 얻어진 t의 값은 각각 4.41과 3.04로 $p=0.001$ 수준과 $p=0.01$ 수준에서 요구되는 t의 값 3.291과 2.576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의 <가설 II①-③>과 <가설 II③-④>는 긍정되었다. 그러나 <가설 II②-④>, <가설 II④-⑤>, <가설 II⑤-⑥> 그리고 <가설 II⑥-①> 등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밝혀져 부정된 셈이다.

위의 결과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신체적 자아와 성격적 자아는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현저하게 긍정적 자아개념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남학생들이 여학생에 비해 신체적인 면에서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으며 성격적으로도 활달한 데에서 기인된 것으로 보여진다. 물론 도덕적

표 5. 학생들의 학년별에 따른 자아개념의 차이검증

자아개념	학년	빈도	평균	표준편차	F 값	자유도	p 값
신체적 자아	1	150	27.50	3.64	1.26	392	0.2840
	2	116	26.81	4.15			
	3	127	27.48	3.87			
도덕적 자아	1	150	26.81	4.39	2.45	392	0.0879
	2	116	26.36	4.69			
	3	127	27.60	4.26			
성격적 자아	1	150	27.08	4.50	1.31	392	0.2704
	2	116	26.28	4.27			
	3	127	26.98	3.94			
가정적 자아	1	150	29.46	3.78	2.58	392	0.0770
	2	116	28.48	3.68			
	3	127	29.32	3.53			
사회적 자아	1	150	28.09	4.86	1.49	392	0.2263
	2	116	27.20	4.47			
	3	127	27.94	3.67			
학문적 자아	1	150	51.80	10.07	2.17	392	0.1158
	2	116	49.98	8.52			
	3	127	52.19	7.34			

자아, 가정적 자아, 사회적 자아 그리고 학문적 자아 등도 미미하나마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긍정적인 경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뚜렷한 차이는 없었다.

2) 학생들이 지각한 자아개념은 그들의 학년별에 따라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본 결과는 다음 표 5와 같다.

이상의 표 5에서 나타내 보이듯이 실제로 얻어진 F의 값들이 p=0.05수준에서 요구하는 F의 값 2.99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져 학생들의 학년에 따라

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가 있을 것이라는 본 연구의 <가설Ⅱ-⑥>는 부정되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아개념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하위 변인들에서 2학년 학생들이 1학년과 3학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부정적 자아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러한 현상은 2학년 학생들이 1학년에 비하여서는 새로운 환경에 대한 호기심과 기대감의 결여에서, 3학년 학생들에 비해서 상급학교 진학이나 취업 등 장래에 대한 목표 의식의 부족에서 기인된 것으로 보여진다.

표 6. 아버지의 학력에 따른 학생들의 자아개념의 차이검증

자아개념	아버지학력	빈도	평균	표준편차	F 값	자유도	p 값
신체적 자아	초등졸	32	25.78	4.03	3.61	392	0.0134
	중졸	90	26.77	3.89			
	고졸	218	27.48	3.90			
	대졸	53	28.30	3.35			
도덕적 자아	초등졸	32	25.19	5.22	2.54	392	0.0562
	중졸	90	26.63	4.12			
	고졸	218	27.11	4.39			
	대졸	53	27.77	4.59			
성격적 자아	초등졸	32	24.97	4.40	5.93	392	0.0006
	중졸	90	25.91	3.97			
	고졸	218	27.10	4.31			
	대졸	53	28.26	3.82			
가정적 자아	초등졸	32	27.59	4.24	3.12	392	0.0259
	중졸	90	29.19	3.24			
	고졸	218	29.09	3.83			
	대졸	53	30.09	3.21			
사회적 자아	초등졸	32	25.72	5.21	5.35	392	0.0013
	중졸	90	26.88	3.95			
	고졸	218	28.23	4.32			
	대졸	53	28.72	4.35			
학문적 자아	초등졸	32	47.19	7.21	8.44	392	0.0001
	중졸	90	49.22	8.58			
	고졸	218	51.95	8.43			
	대졸	53	55.30	9.91			

3) 학생들이 지각한 자아개념은 그들 아버지의 학력에 따라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본 결과는 다음 표 6과 같다.

위의 표 6에서 알 수 있듯이 신체적 자아와 가정적 자아는 $p=0.05$ 수준에서, 경제적 자아, 사회적 자아 그리고 학문적 자아는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져 본 연구의 <가설Ⅱ①-③>, <가설Ⅱ③-③>, <가설Ⅱ④-③>, <가설Ⅱ⑤-③> 그리고 <가설Ⅱ⑥-③>은 긍정되었다. 그러나 본 <가설Ⅱ②-③>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밝혀져 부정된 셈이다.

위의 결과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아버지의 학력 수준이 높을수록 학생들의 자아개념의 성향이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들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자녀에 대한 기대수준이 높으며, 사회경제적 지위는 곧 학력수준

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부모의 학력수준과 자녀의 자아개념 형성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4) 학생들이 지각한 자아개념은 그들의 가정생활 정도에 따라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본 결과는 다음 표 7과 같다.

위의 표 7에서 알 수 있듯이 도덕적 자아와 학문적 자아는 $p=0.05$ 수준에서, 가정적 자아는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져 본 연구의 <가설Ⅱ②-④>, <가설Ⅱ④-④> 그리고 <가설Ⅱ⑥-④> 등은 긍정되었다. 그러나 신체적 자아, 성격적 자아 그리고 사회적 자아는 가정생활 정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본 <가설Ⅱ①-④>, <가설Ⅱ③-④> 그리고 <가설Ⅱ⑤-④> 등은 부정된 셈이다.

표 7. 가정생활 정도에 따른 학생들의 자아개념의 차이검증

자아개념	가정생활정도	빈도	평균	표준편차	F 값	자유도	p 값
신체적 자아	상	38	28.40	4.39	1.53	392	0.2058
	중	312	27.26	3.82			
	하	43	26.72	3.63			
도덕적 자아	상	38	28.14	5.33	2.97	392	0.0318
	중	312	27.01	4.23			
	하	43	25.28	5.02			
성격적 자아	상	38	27.94	5.16	2.53	392	0.0566
	중	312	26.85	4.16			
	하	43	25.44	4.01			
가정적 자아	상	38	29.85	3.57	4.51	392	0.0040
	중	312	29.30	3.55			
	하	43	27.26	4.26			
사회적 자아	상	38	28.89	4.73	1.41	392	0.2399
	중	312	27.74	4.27			
	하	43	27.05	4.83			
학문적 자아	상	38	52.34	11.63	2.66	392	0.0481
	중	312	51.77	8.25			
	하	43	47.86	9.98			

이러한 결과에 대해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아개념의 모든 하위 변인에 상관없이 대체적으로 가정생활의 수준이 높을수록 학생들의 자아개념이 긍정적인 경향을 나타내 보이고 있다. 이는 가정의 경제적 생활이 윤택할수록 부모의 자녀에 대한 애정과 높은 관심을 갖게 됨으로써 학생들의 자아개념은 긍

정적으로 형성되는 것으로 보여진다.

다. 학생들의 배경변인에 따른 진로성숙의 차이검증

1) 학생들이 지각한 진로성숙은 그들의 성별에 따라

표 8. 학생들의 성별에 따른 진로성숙의 차이검증

진로성숙	성별	빈도	평균	표준편차	t 값	자유도	p 값
결정성	남	251	25.93	4.67	1.70	391	0.0890
	여	142	25.15	3.81			
관여성	남	251	22.59	3.41	0.96	391	0.3399
	여	142	22.27	2.83			
독립성	남	251	28.37	3.94	-1.13	391	0.2575
	여	142	28.85	3.98			
성향	남	251	30.21	5.28	0.58	391	0.5628
	여	142	29.90	4.55			
타협성	남	251	14.67	2.06	-0.90	391	0.3703
	여	142	14.87	2.03			

표 9. 학년별에 따른 학생들의 진로성숙의 차이검증

진로성숙	학년	빈도	평균	표준편차	F 값	자유도	p 값
결정성	1	150	25.99	4.34	1.94	392	0.1453
	2	116	24.98	4.39			
	3	127	25.85	4.43			
관여성	1	150	22.41	3.39	1.25	392	0.2878
	2	116	22.84	3.23			
	3	127	22.20	2.95			
독립성	1	150	27.95	4.21	3.42	392	0.0337
	2	116	28.60	3.74			
	3	127	29.19	3.75			
성향	1	150	30.21	5.19	2.61	392	0.0748
	2	116	29.27	4.67			
	3	127	30.72	5.07			
타협성	1	150	14.44	2.09	3.56	392	0.0293
	2	116	14.75	2.00			
	3	127	15.09	1.99			

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본 결과는 다음 표 8과 같다.

위의 표 8에서 알 수 있듯이 실제로 얻어진 t의 값들은 $p=0.05$ 수준에서 요구되는 t의 값 1.960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의 <가설Ⅲ-㉔>는 부정된 셈이다.

위의 결과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결정성, 관여성 그리고 성향 변인 등은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진로성숙 정도가 발달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독립성과 타협성 변인은 오히려 여학생들의 진로성숙 정도가 더 발달한 것으로 밝혀져 꺾 대조를 보였다.

2) 학생들이 지각한 진로성숙은 그들의 학년별에 따라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본 결과는 다음 표

9와 같다.

위의 표 9에서 알 수 있듯이 독립성과 타협성 변인은 $p=0.05$ 수준에서 요구되는 F의 값 2.99보다 큰 것으로 밝혀져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의 <가설Ⅲ③-㉔>와 <가설Ⅲ⑤-㉔>는 긍정되었다. 그러나 결정성, 관여성 그리고 성향 변인 등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본 <가설Ⅲ①-㉔>, <가설Ⅲ②-㉔> 그리고 <가설Ⅲ④-㉔> 등은 부정되었다.

위의 결과를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독립성과 타협성은 학년이 높아질수록 진로성숙의 정도가 발달되는 경향성을 나타내 보이고 있다. 이는 학년이 높아질수록 진로선택을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정도가 커지며, 진로선택시 욕구와 현실을 타협하는 정도가 커지는 데에서 기인된 것으로 보여진다.

표 10. 아버지의 학력에 따른 학생들의 진로성숙의 차이검증

진로성숙	아버지학력	빈도	평균	표준편차	F 값	자유도	p 값
결정성	초등졸	32	25.97	4.24	8.68	392	0.0001
	중졸	90	24.46	3.69			
	고졸	218	25.48	4.38			
	대졸	53	28.17	4.70			
관여성	초등졸	32	22.06	4.33	4.48	392	0.0041
	중졸	90	22.67	2.86			
	고졸	218	22.80	3.11			
	대졸	53	21.08	3.09			
독립성	초등졸	32	27.81	2.93	.03	392	0.1086
	중졸	90	28.08	3.83			
	고졸	218	28.59	3.99			
	대졸	53	29.58	4.38			
성향	초등졸	32	29.06	5.15	4.55	392	0.0038
	중졸	90	29.42	4.30			
	고졸	218	29.99	5.18			
	대졸	53	32.30	4.92			
타협성	초등졸	32	13.91	2.05	2.66	392	0.0477
	중졸	90	14.62	2.03			
	고졸	218	14.82	2.03			
	대졸	53	15.13	2.07			

3) 학생들이 지각한 진로성숙은 그들 아버지의 학력에 따라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본 결과는 다음 표 10과 같다.

위의 표 10에서 알 수 있듯이 타협성 변인은 $p=0.05$ 수준에서, 결정성, 관여성 그리고 성향 변인은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져 본 연구의 <가설Ⅲ①-㉔>, <가설Ⅲ②-㉔>, <가설Ⅲ④-㉔> 그리고 <가설Ⅲ⑤-㉔> 등은 긍정되었다. 그러나 본 <가설Ⅲ③-㉔>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밝혀져 부정된 셈이다.

위의 결과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관여성 변인만 제외한 결정성, 독립성, 성향 그리고 타협성 변인 등은 대체적으로 아버지의 학력 수준이 높을수록 학생들의 진로성숙 정도가 상대적으로 발달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아버지의 학력이 대졸인 경우 다른 학력에 비해 학생의 진로성숙의 정도가 발달된 것으로 미루어 보아 자녀의 진로 선호, 진로 선택 그리고 진로결정 등에 있어서 자녀의 의사를

수용하는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데에서 기인된 것으로 보여진다.

4) 학생들이 지각한 진로성숙은 그들의 가정생활 정도에 따라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본 결과는 다음 표 11과 같다.

위의 표 11에서 알 수 있듯이 성향 변인은 $p=0.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져 본 연구의 <가설Ⅲ④-㉔>은 긍정되었다. 그러나 결정성, 관여성, 독립성 그리고 타협성 변인 등은 가정생활 정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본 <가설Ⅲ①-㉔>, <가설Ⅲ②-㉔>, <가설Ⅲ③-㉔> 그리고 <가설Ⅲ⑤-㉔> 등은 부정된 셈이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결정성, 관여성 그리고 성향 변인 등은 대체적으로 가정생활의 수준이 높을수록 학생들의 진로성숙 정도가 미미하나마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내 보이고 있다. 그

표 11. 가정생활 정도에 따른 학생들의 진로성숙의 차이검증

진로성숙	가정생활정도	빈도	평균	표준편차	F 값	자유도	p 값
결정성	상	38	26.46	4.51	0.61	392	0.6086
	중	312	25.63	4.35			
	하	43	25.12	4.75			
관여성	상	38	22.97	4.40	1.03	392	0.3781
	중	312	22.46	3.02			
	하	43	22.02	3.49			
독립성	상	38	27.89	4.40	0.90	392	0.4398
	중	312	28.59	3.92			
	하	43	28.95	3.91			
성향	상	38	30.71	6.12	3.03	392	0.0294
	중	312	30.29	4.84			
	하	43	28.65	5.09			
타협성	상	38	14.00	2.11	2.47	392	0.0615
	중	312	14.79	2.02			
	하	43	15.07	2.08			

러나 독립성 변인과 타협성 변인은 오히려 가정생활의 수준이 낮을수록 학생들의 진로성숙도가 상대적으로 발달된 것으로 밝혀져 꺾 대조를 보이고 있다.

VI. 요약 및 결론

1.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농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지각한 자아개념과 진로성숙과는 상호 어떠한 관계가 존재하는가를 밝히며, 또한 학생들이 지각한 자아개념과 진로성숙은 그들의 배경변인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를 규명하는데 있다. 따라서 본 연구와 관련된 문헌과 논문들을 분석하여 이론적 기초를 마련한 다음 농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자아개념과 진로성숙의 정도는 그들의 배경변인에 따라 어떻게 다른가 하는 문제를 설정하였다.

〈가설 1〉 자아개념을 구성하고 있는 하위 변인과 진로성숙 하위 변인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다.

〈가설 2〉 자아개념을 구성하고 있는 하위 변인(① 신체적 자아 ② 도덕적 자아 ③ 성격적 자아 ④ 가정적 자아 ⑤ 사회적 자아 ⑥ 학문적 자아)은 학생들의 배경변인(① 성별 ② 학년 ③ 아버지의 학력 ④ 가정생활 정도)에 따라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3〉 진로성숙을 구성하고 있는 하위 변인(① 결정성 ② 관여성 ③ 독립성 ④ 성향 ⑤ 타협성)은 학생들의 배경변인(① 성별 ② 학년 ③ 아버지의 학력 ④ 가정생활 정도)에 따라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 사용한 검사도구는 김기정이 개발한 “자아개념” 질문지와 Crites(1978)가 제작한 진로성숙도(Career Maturity Inventory: C.M.I.)를 김현옥(1989)이 번안하여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증된 “진로성숙 태도척도”를 사용하였다. 작성된 질문지는 경기도에 소재한 3개의 농업계 고등학교 1, 2, 3학년 남학생 420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본 연구에서 설정된 가설을 검

증하기 위해 사용한 통계기법은 Pearson의 적률상관(r)과 변량분석(ANOVA) 및 t-test 방법 등이다.

그 결과, 본 연구의 〈가설Ⅱ①-①〉, 〈가설Ⅱ③-①〉, 〈가설Ⅱ①-②〉, 〈가설Ⅱ③-②〉, 〈가설Ⅱ④-②〉, 〈가설Ⅱ⑤-②〉, 〈가설Ⅱ②-③〉, 〈가설Ⅱ④-③〉, 〈가설Ⅱ⑥-③〉, 〈가설Ⅲ③-③〉, 〈가설Ⅲ⑤-③〉, 〈가설Ⅲ①-④〉, 〈가설Ⅲ②-④〉, 〈가설Ⅲ④-④〉, 〈가설Ⅲ⑤-④〉, 〈가설Ⅱ⑥-④〉 그리고 〈가설Ⅲ④-⑤〉 등은 긍정되었다.

그러나 〈가설Ⅱ②-①〉, 〈가설Ⅱ④-①〉, 〈가설Ⅱ⑤-①〉, 〈가설Ⅱ⑥-①〉, 〈가설Ⅱ-②〉, 〈가설Ⅱ②-③〉, 〈가설Ⅲ②-④〉, 〈가설Ⅲ③-④〉, 〈가설Ⅲ⑤-④〉, 〈가설Ⅱ①-⑤〉, 〈가설Ⅱ③-⑤〉, 〈가설Ⅱ⑤-⑤〉, 〈가설Ⅲ-③〉, 〈가설Ⅲ①-⑥〉, 〈가설Ⅲ②-⑥〉, 〈가설Ⅲ④-⑥〉, 〈가설Ⅲ③-③〉, 〈가설Ⅲ①-⑥〉, 〈가설Ⅲ②-⑥〉, 〈가설Ⅲ③-⑥〉 그리고 〈가설Ⅲ⑤-⑥〉 등은 부정되었다. 또한 본 연구의 〈가설Ⅰ〉은 부분적으로만 긍정된 셈이다.

2. 결론

본 연구의 결과를 가지고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1) 성격적 자아와 성향, 학문적 자아와 성향 변인의 상관계수는 각각 0.31과 0.33으로 다른 변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상관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자아개념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하위 변인과 관여성과는 거의가 매우 낮은 정적 상관 및 부적 상관을 나타내 보여 꺾 대조를 보였다. 따라서 진로결정에 필요한 사전 이해와 준비성의 정도는 학생들의 성격적 자아와 학문적 자아와는 많은 관련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2) 농업계 고등학생들의 배경변인에 따른 자아개념 차이 검증 결과에서

① 성별에 따른 자아개념 차이검증 결과, 신체적 자아와 성격적 자아는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하여 현저하게 긍정적 자아개념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남학생들이 여학생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신체적으로 우위에 있으며 성격적으로도 활

달한 데에서 기인된 것으로 보여진다. 물론 도덕적 자아, 가정적 자아, 사회적 자아 그리고 학문적 자아 등도 미미하나마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긍정적인 경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뚜렷한 차이는 없었다.

㉞ 학년에 따른 자아개념 차이검증 결과, 자아개념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하위 변인들에서 2학년 학생들이 1학년과 3학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부정적 자아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러한 현상은 2학년 학생들이 1학년에 비하여서는 새로운 환경에 대한 호기심과 기대감의 결여에서, 3학년 학생들에 비해서 상급학교 진학이나 취업문제 등 장래에 대한 목표 의식의 부족에서 기인된 것으로 보여진다.

㉟ 아버지의 학력에 따른 자아개념 차이검증 결과, 대체적으로 아버지의 학력 수준이 높을수록 학생들의 자아개념의 성향이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들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자녀에 대한 기대수준이 높으며, 사회경제적 지위는 곧 학력수준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부모의 학력수준과 자녀의 자아개념 형성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㊱ 가정생활 정도에 따른 자아개념의 차이검증 결과, 자아개념의 모든 하위 변인에 상관없이 대체적으로 가정생활의 수준이 높을수록 학생들의 자아개념이 긍정적인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가정의 경제적 생활이 윤택할수록 부모의 자녀에 대한 애정과 높은 관심을 갖게 됨으로써 학생들의 자아개념은 긍정적으로 형성되는 것으로 보여진다.

3) 농업계 고등학생들의 배경변인에 따른 진로성숙도 차이 검증 결과에서

㉠ 성별에 따른 진로성숙도 차이를 검증한 결과 결정성, 관여성 그리고 성향 변인 등은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진로성숙 정도가 발달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독립성과 타협성 변인은 오히려

여학생들의 진로성숙 정도가 남학생보다 더 발달한 것으로 밝혀져 딱 대조를 보였다.

㉡ 학년에 따른 진로성숙도 차이검증 결과, 독립성과 타협성은 학년이 높아질수록 진로성숙의 정도가 발달되는 경향성을 나타내 보이고 있다. 이는 학년이 높아질수록 진로선택을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정도가 커지며, 진로선택시 욕구와 현실을 타협하는 정도가 커지는 데에서 기인된 것으로 보여진다. .

㉢ 아버지의 학력에 따른 진로성숙도 차이검증 결과, 관여성 변인만 제외한 결정성, 독립성, 성향 그리고 타협성 변인 등은 대체적으로 아버지의 학력 수준이 높을수록 학생들의 진로성숙 정도가 상대적으로 발달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아버지의 학력이 대졸인 경우 다른 학력에 비해 학생의 진로성숙의 정도가 발달된 것으로 미루어 보아 자녀의 진로 선호, 진로선택 그리고 진로결정 등에 있어서 자녀의 의사를 수용하는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데에서 기인된 것으로 보여진다.

㉣ 가정생활 정도에 따른 진로성숙도 차이검증 결과, 결정성, 관여성 그리고 성향 변인 등은 대체적으로 가정생활의 수준이 높을수록 학생들의 진로성숙 정도가 미미하나마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내 보이고 있다. 그러나 독립성 변인과 타협성 변인은 오히려 가정생활의 수준이 낮을수록 학생들의 진로성숙도가 상대적으로 발달된 것으로 밝혀져 딱 대조를 보이고 있다.

참고문헌

1. 강종구, 1986, 자아개념, 진로의식성숙 및 학업성취도가 직업포부수준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 김기정, 1984, 학업성취도와 지각된 양육대도가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3. 김충기, 1987, 「직업교육과 진로교육」, 교육과학

- 사.
4. _____, 1986, 「진로교육과 진로지도」, 배영사.
 5. 김충기 · 김현옥, 1992, 「산업사회와 진로교육」, 배영사.
 6. 김충기 편저, 1989, 「진로상담의 이론과 실제」, 성원사.
 7. 김현옥, 1989, 청소년의 진로성숙과 관련변인과의 상관관계,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8. 류은숙, 1986, 상업고등학교 학생들의 자아개념과 학업성취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9. 서봉연, 1975, 자아정체감 형성에 관한 심리학적 일 연구,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0. 송인섭, 1989, 「인간심리와 자아개념」, 양서원.
 11. 신현숙, 1992, 아동이 지각하는 부모의 양육태도와 학업에 대한 자아개념 학습습관과의 관계 연구,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2. 이재신, 1984, 직업선택에 관한 의사결정의 관련 요인 탐색, 학생생활연구, 충북대학교 학생생활 연구.
 13. 장석민 외, 1986, 「진로교육의 이론과 실제」, 한국교육개발원.
 14. 정순희, 1989, 자아개념, 자아정체감 및 내외통제성이 진로결정에 미치는 영향,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5. 홍기정 · 이승우, 1987, 「진로지도」, 교육출판사.
 16. 황윤미, 1992, 인생목적 수준과 진로성숙도와와의 상관관계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7. Bandura, A., 1977, Social Learning Theory, Englewood Cliffs, N. J. : Prentice-Hall, Inc.
 18. Bordin, E. S., Nachmann, B., & Segal, S. J., 1963, "An Articulated Framesork for Vocational Development",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Vol. 10.
 19. Fretz, B. R. & Leong, F. T. L., 1982, "Vocational Behavior and Development",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Vol. 21.
 20. Greenhaus, J. H., 1971, "Self-esteem as an Influence on Occupational Choice and Occupational Satisfaction Choice",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Vol. 1.
 21. Gribbons, W. D., & Lohnes, P. R., 1984, "Relationships among Measures of Readiness for Vocational Planning",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Vol. 41.
 22. Holland, J. L., 1959, "A Theory of Vocational Choic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Vol. 6.
 23. Hoyt, K. B., 1977, 「The School Counsellor and Career Education」, Washington, D. 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24. Kidd, J. M., 1984, "The Relationship of Self and Occupational Concepts to the Occupational Preferences of Adolescent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Vol. 24.
 25. Korman, A. K., 1969, "Self-esteem as a Moderator in Vocational Choice : Replications and Extentions",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Vol. 53.
 26. Mathewson, R. H., & Orton, J. W., 1963, "Vocational Imagery and Vocational Maturity of High School Student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Vol. 10.
 27. Nelson, M. D., 1987, "The Effects an Intensive Vocational Evaluation Involving Work Samples on Career Decision, Self-esteem, and State Anxiety in Rehabilitation Client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Virginia Polytechnic Institute and State University.
 28. Roe, A., 1957, "Early Determinants of Vocational Choic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Vol. 4.